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행동 유병률과 관련 요인

신중헌¹, 이태용², 유미선³, 김광환⁴

¹충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²충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³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⁴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A study on suicidal behavior factors

Jong-Hun Shin¹, Tae-Yong Lee², Mee-Sun You³, Kwang-Hwan Kim⁴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²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³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⁴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Gyeongsang University

요 약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일개 도의 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주민의 자살행동 평생유병률을 구하고,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과 자살생각 및 자살계획을 갖는 집단의 위험요인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률은 15.9%, 자살계획은 4.3%, 자살시도율은 1.8%이었으며, 자살생각자 중 27.0%가 자살계획을, 자살 계획자 중 42%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전체 독립변수간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직업이 전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며, 자살생각만에는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살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우울증, 스트레스, 연령, 삶의 질, 사회적 갈등,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1. 서 론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정신과에서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살생각, 자살계획 및 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문화와 가치관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자살생각만 있는 사람에 비하여 자살생각 후 자살계획(이후 자살생각/자살계획), 자살생각 후 자살시도(이후 자살생각/자살시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위험요인이라도 더 높은 강도(strength)를 보이거나, 위험요인의 차이 또는 수준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험요인의 조합에 의하여 자살생각 및 시도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므로 한정된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할 때 이런 위험집단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생각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현실에 맞는 자살예방 및 관리대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자 및 기간

자살 및 정신건강조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을 거부하거나 설문지 수거가 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1,1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내용

조사된 설문지는 조사당일 결측자료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보건소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담당자는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설문지는 전산자료로 입력되었다. 자료입력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각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자료입력에 필요한 부호화를 위한 지침은 연구진에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지금까지 많은 정신보건관련 역학조사에서 자주 사용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건지표들을 사용하였다.

2.3. 분석방법

개인용 컴퓨터로 SPSS 통계프로그램(버전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병률은 응답한 대상자의 수를 모집단 대비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차이는 명목척도 변수는 카이스퀘어 검정, 연속변수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조사지역, 가족형태별 자살행동 유병률

조사대상자의 1,162명의 자살생각률은 15.9%, 자살계획은 4.3%, 자살시도율은 1.8%이었으며, 자살생각자 중 27.0%가 자살계획을, 자살계획자 중 42.0%가 자살시도를 하였다.

성별로는 자살생각의 경우 여자가 18.9%로 남자 13.1%보다 높았으며(p=.009),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는 차이가 없었다.

3.2 교육수준, 직업유무, 의료보험 종류, 가족수입, 삶의 질, 음주수준에 따른 자살행동의 교차비

교육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대졸을 기준하였을 때 전체 자살생각군, 자살생각군, 자살생각/계획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살생각/계획군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교차비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자살생각군의 경우 직업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무직군에서 교차비가 1.710배(95% CI=1.243-2.354) 높았고, 자살생각군은 1.471배(95% CI=1.019-2.124) 높았으며, 자살생각/계획군에서도 2.580배(95% CI=1.446-4.602) 유의하게 높았다.

3.3 자살생각과 자살생각/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다변량분석

단변량분석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생각/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만 단계별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스트레스, EQ-5D, 사회적 갈등, 삶의 질, 가족수입, 연령, 조사지역의 순으로 입력이 되었다.

자살생각의 경우 우울은 비우울군에 비하여 보통 우울군의 교차비가 4.786배(95% CI=2.020-11.340) 높았고, 심한 우울군의 교차비는 6.420배(95% CI=2.471-16.678)로 우울이 심할수록 높아졌다.

스트레스는 비스트레스군에 비하여 스트레스군의 교차비가 2.792배(95% CI= 1.485-5.251) 높았으며,

EQ-5D는 0.050점 이하군에 비하여 0.051-0.092점군의 교차비는 1.767배(95% CI=.627-4.977), 0.093점 이상군은 .708배(95% CI=.302-1.663)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이 많았다.

4. 고 찰

우리나라와 경제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대만의 평생유병률은 자살생각이 2.84%(Lee 등, 2010)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다. 전반적인 자살관련행동의 유병률은 세계적인 수준의 범주에 있으나 특히 자살생각의 유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자살시도의 유병률은 그리 높지 않다. 자살생각만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 평가일수도 있으므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역시 필요하다.

성별과 연령은 자살생각군에 영향을 주었지만 자살생각/계획군에는 조사지역이 영향을 주었다. 직업에서는 자살생각/계획군에서 직업군에 비하여 비직업군에 비하여 교차비가 2.580배로 자살생각군의 1.471배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보험에서도 자살생각/계획군에서 의료보험에 비하여 의료보호에서 교차비가 3.241배로 자살생각군의 2.584배보다 높아졌다.

삶의 질에서도 자살생각군에 비하여 자살생각/계획군에서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CAGE에 의한 알코올의존군에서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도 자살생각/계획군에서 비스트레스군에 비하여 스트레스군에서 교차비가 4.257배로 자살생각군의 2.557배에 비하여 높았고, 우울증도 자살생각/계획군에서 비우울증군에 비하여 보통 우울군 3.504배, 심한 우울군 14.393배로 자살생각군의 4.169배, 6.220배에 의하여 높았다.

그러나 정신상담을 받은 군은 자살행동 위험도는 오히려 낮아져서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자살생각/계획군에서 양호군에 비하여 보통군의 교차비가 1.485배, 불량군은 3.263배로 자살생각군의 1.615배, 1.368배에 비하여 불량군에서만 크게 차이가 있었다.

참고문헌

- [1] 기선완.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살관련행동과 위험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0.
- [2]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 2009
- [3] 정우영, 박제민, 강철중, 이병대, 이영민. 자살 및 자살 시도자의 임상적 특성과 2~4년 488-495
- [4] Lee JI, Lee MB, Liao SC, Chang CM, Sung SC, Chiang HC, Tai CW. Prevalence of suicidal ideation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J Formos Med Assoc. 2010; 109(2): 138-47